해인사 장경판전 새단장

2년만에 4개동 기와·서까래 교체
해충·습기 방지…내년 경판 소독

세계문화유산인 해인사(주지 보광) 팔만대장경(국보32호)을 6백년 동안 완벽하게 보존하고 있는 장경판전(국보52호)이 2년여의 해체보수공사 끝에 말끔히 단장됐다.

모두 4개동의 건물로 구성돼 있는 장경판전은 97년 11월 고려각판을 보관하고 있는 동사간전 해체보수를 시작으로 국간판을 보관하고 있는 수다라전과 법보전 보수공사가 진행됐으며 이달말 서사간전 보수공사의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번 공사는 4개동의 지붕기와 및 서까래연목을 전면교체한 대작 보수불사로 수다라전 보수에만 7억 9천여만원이 들어가는등 국비와 지방비등 총20억여원이 소요됐다.

지난 64년 전면 해체보수됐던 장경판전은 그동안 수차례 누수현상을 보이다가 86년 빗물이 경판까지 스며드는 상황에 이르자 문화재연구소 김동현씨를 단장으로 하는 관전보수공사지도단이 구성돼 지난 97년, 33년만에 재보수에 들어갔었다.

이번 공사에는 일반기와 1.5배 크기(42×45cm)의 특대와(特大瓦) 등 기와 4만여장이 소요되었으며 서까래연목에는 강원도에서 생산된 국산 육송이 사용됐다.

특히 동서사간전의 바닥은 숯, 소금, 황토에다 강회를 섞어 마감함으로써 습기와 해충피해를 방지하고 최적의 보관상태를 유지하도록 했다. 또한 동서사간전의 경우 판가1단에 경판을 2층으로 겹쳐 보관했던 것을 1단1층으로 보관할수 있도록 판가를 새로 만들었다.

◇2년여에 걸친 대대적인 보수공사로 새롭게 단장된 해인사 장경판전. 내년엔 경판에 대한 훈증소독이 실시될 예정이다.

해인사와 문화재청은 현재 경판의 손잡이 부분인 마구리 보수를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경판에 대한 대대적인 훈증소독과 담장보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관전보수를 담당했던 남일스님은 "이번 공사를 통해 판전의 정확한 구조 및 보수와 관련된 자료를 축적하게 된것은 성과중의 하나"라고 말했다. 이윤호 기자

(yhlee@buddhapia.com)

◇선재마을은 10일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동체마을 만들기에 착수했다.

장성에 실버타운 착공

'선재마을'…108세대 수용

재단법인 여래세상(이사장 지선)은 10일 장성군 황룡면 황룡리에서 실버타운 선재마을 기공식을 가졌다.

선재마을은 대지 7천여평에 12평과 22평으로 108세대가 살 수 있는 주거건물이 건축되고 근린생활시설, 전시장, 복지관등이 들어선다. 총공사비 20억원이 투입될 선재마을은 (주) 객건설이 건립하여 분양하고 (재) 여래세상이 운영하게 된다.

천운스님(광주불교사암연합회장)은 기공식에서 법어를 통해 "노년의 행복한 공동체 만들기 사업은 불교계가 앞으로 매진해야 한다"며 "부처님의 뜻에 기대어 안락하게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다정(백양사주지) 성호(관음암주지) 영조(증심사주지) 시각(만덕사주지) 광민(무각사주지)스님과 광주·전남불교신도회 김두원회장, 광주남구 정동년구청장등 1천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주용직 광주지사장

불탑사 5층석탑 보수

보물 1187호인 제주 불탑사 5층석탑이 복원을 위해 11일 완전 해체됐다. 2000년 1월에 복원완료될 예정인 불탑사 5층석탑은 그동안 지반붕괴에 따라 기울어진 상태였다.

정영호(교원대 박물관장) 문화재위원은 "제주의 화산회토에 기반정지작업이 부실했고 상륜부 뚜껑과 비석머리형 돌의 중압감으로 지반붕괴가 생겼다"고 분석했다.

불탑사 5층석탑은 고려 충렬왕 26년에 세워졌으며 제주도에서는 유일한 국보급 보물이다.

김원우 기자

찬불가합창제로 화합다져

천안·아산지역 사찰 수익금 불우이웃돕기

아산과 천안지역 불자들이 합창제를 통한 지역교류에 나섰다.

27일 오후3시 아산시청 대강당에서 '부처님 들어보세요'라는 주제로 열리는 99 천안·아산 불교합창단 찬불가 발표회에는 아산과 천안지역 50개 사암 주지와 불자 1천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합창제 수익금은 전액 지역 소년소녀가장과 독거노인들에게 전달된다.

아산시사암연합회 영산합창단(단장 만성)과 천안지역 각원사 도솔합창단(단장 대원) 보명사 반야합창단(단장 성철), 불자가수와 불자예술인들이 참가하는 합창제는 매년 아산과 천안지역을 순회하며 지속적으로 열릴 계획이다.

만성스님은 "찬불가를 널리 선양하고 보급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화합을 도모하고 이웃을 돕는데 일조하기 위해 합창제를 준비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한마음선원 제주지원 봉사단체 '보은회' 창립

한마음선원 제주지원(지원장 혜묘)은 14일 노약자와 거동이 불편한 신도들을 돕기위해 보은회를 창립했다.

지원장 혜묘스님은 축사를 통해 "일방적인 봉사가 아닌 은혜에 보답하는 회향의 의미가 담겨있다"며 "앞으로 너와 내가 둘이 아닌 도리로 적극적인 활동을 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초대회장에 선출된 고도인보살은 "거동이 불편한 불자들의 신행생활을 돕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문수사 불교문화원 열었다

참선·교리·다도 강좌

부산 문수사(주지 지원)가 문수불교문화원(원장 설곡)을 개원하고 문화를 통한 지역 포교에 적극 나섰다.

20일 부산시 용당동에 개원한 문수불교문화원은 30평 규모의 강당과 법당 공간을 갖추고 주민은 물론 불자들의 문화공간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개원 기념으로 27일까지 티벳불교 사진전을 갖고 12월 1일부터 본격적인 정기강좌를 개설하고 문화를 통한 포교를 시작한다.

화엄경 보현행원품 강좌, 불교기초교리, 현대인을 위한 참선, 다도, 노래부르기 교실, 서예, 어린이 뮤지컬, 테크노댄스 등 다양한 문화강좌도 열릴 예정이다. (051)611-3173 천미희 기자

"지금 이 방송을 기다리시는 2천만 불자 여러분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지금부터 BBS 불교방송의 정규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10초 짜리 첫 방송개시 멘트로 1990년 5월1일 화요일 오전 10시 역사적인 불교방송은 이렇게 시작됐다.

라디오로 예불소리 목탁소리 범종소리를 듣는 그날이 오기를 염원했던 불자들의 꿈을 실현시킨 감격스런 불교방송 첫 전파를 탄 목소리의 주인공은 당시 아나운서 부장이던 방송인 이선미씨(53·이화여대대학원 강사).

"사바에 깨침의 소리 띄웠지요"

20세기 불교 **그 현장 그 인물** 〈7〉

불교방송 첫 전파 탄 이선미씨

"방송 데뷔때보다 더 긴장됐었습니다. 신성한 첫 방송이라는 역사적인 순간에 스튜디오에 앉아있다고 생각하니 순간 숨이 딱 막힌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실수하면 어쩌나, 잘못되면 어떡하나 걱정되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잘 해냈고, 개인적으로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방송경력 30년째 되는, 몇 안되는 전문 방송인 가운데 한사람인 이선미씨는 잠시 그때의 감회에 젖는 듯 했다.

개국 첫 방송이 나가는 그 시각, 주조실에는 종단 지도자 스님들을 비롯해 불교단체장 등 교계 지도급 인사들이 죽 들어서서 스튜디오에 시선을 맞추고 라디오로 타고 나올 음성에 귀를 모았다. 이어 "오늘 우리는 사바중생의 마음속에 영원히 꺼지지 않은 등불 하나를 밝혔습니다"로 시작해 "BBS 불교방송은 불기 2534년 지금 이순간부터 여러분과 함께 존재하는 마음의 평화, 진리의 구현자임을 경건하게 다짐합니다"로 끝마치는 개국선언이 전파를 타고 온 세상에 울려퍼졌다. 이렇게 해서 세계에서 처음으로 독립된 불교방송국이 서울 마포 다보빌딩에 연주소를 두고 호출부호 HLSG, 주파수 101.9MHz, 출력 5Kw, FM 스테레오 방식으로 새 전파길을 연 것이다. 이날 개국전부터 전국적으로 불교방송 설립 성금모금에 동참했던 불자들의 감회 역시 대단했다. '반야심경' '찬불가'를 라디오방송으로 듣게 된 감격은 개국 바로 다음날이 부처님오신날이라 더욱 실감나게 와닿았던 것이다.

"불자들의 여망과 격려가 여간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첫 방송이후 일정기간은 불자들이 맹목적이다시피 한 애정으로 들어준 덕분에 실무자들이 더욱 의욕과 용기를 낼 수 있었다고 봅니다."

유일한 여성부장으로 개국 준비단계부터 참여해서 개국에 앞서 3월1일 시험방송 전파도 탔던 이선미씨는 불교와 맺은 깊은 인연을 가장 큰 소득으로 꼽는다.

데뷔때보다 더 긴장
현재 강단서 후진양성

70년 동아방송에 입사해 방송생활을 시작한 그는 불교방송에 들어올 때만 해도 무종교인이며 불교에 대한 친근한 정서가 전부였다고 한다.

"막상 일을 하겠다고 했지만, 내심으로는 불교를 모르는 것이 걱정이 됐습니다. 무엇보다 용어에 자신이 없었습니다. '성불하세요'가 맞는지 '성불합시다'가 맞는지 명확히 알지 못해 고민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때 큰 힘을 불어넣어주신 분이 정인섭 前사장(당시 전무)님이셨습니다. '공부해 공부. 처음부터 아는 사람이 어디 있나' 하시는 말씀에 의지했습니다."

◇불교방송 개국멘트를 했던 이선미씨(위)와 불교방송 전경.

그는 70년대 초창기엔 방송실무에 열정을 보였고 80년대엔 프리랜서로서 프로의식으로 방송을 다듬었다면, 불교방송과 함께 시작한 90년대는 모든 방송 역량을 종합해 기량을 펴기 위해 노력한 종합편으로 회고한다.

"KBS방송 준비차 도서실에 갔다가 우연히 잡지에서 장상문사장님 인터뷰를 읽게됐습니다. 그냥 흘려보내지 않았는데 며칠후 불교방송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두 번 생각도 않고 흔쾌히 선택했어요. 종교방송이라면 불교라는 것이 소신이었으니까요."

지난 98년 퇴사해 박사학위를 준비하면서 강단에서 후진양성에 힘쏟고 있는 그는 불교방송이 종교와 방송을 잘 엮어내는 전문방송의 역량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위영란 기자

(yryui@buddhapia.com)

기장 사암련사무실 개원

강좌·신행공간 활용

기장불교 사암연합회(회장 대광)는 12일 사무실을 개원하고 부처님 점안식을 봉행했다.

이날 개원한 사무실은 사암연합회의 업무외에도 기초교리강좌, 한글학교 등을 개설해 지역 주민들의 신행, 정진의 장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천미희 기자

당신은 본래 청정하고 신성한 존재입니다.
자신을 바꿀 수 있는 멋진 길이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아봐타코스

◐아봐타 코스는 7-9일 걸리며, 비용은 160만원입니다.
◐전화주시면 관계는 안내서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교통편 : 서울역, 시청앞, 조계사앞, 3호선 경복궁역에서 135, 135-1, 2, 3번 버스로 약 20분 거리

밝은길 아봐타센터
마스터 / 위저드 김희균 합장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TEL : (02)396-2736 H.P : 016-228-2358

2000년 불교달력은 감로카렌다가 1등 입니다

동자승의 세계

크기:大·小

적멸보궁과 기도도량

크기:大·小

대 불(大佛)

크기:大·小

산사의 향기

크기:大·小

한국의 명찰

크기:大·小

한국의 석불

크기:大·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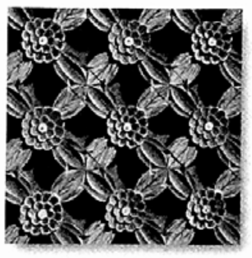
살아있는 달마

크기:小

북한의 사찰

크기:小

불교전통문살의 미



크기: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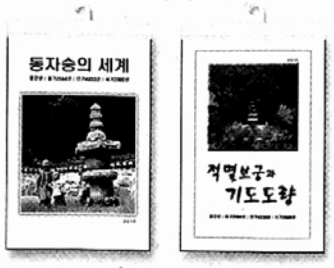
금강산의 사계

크기:小

나한도

크기:小

차량용 미니 달력



크기:(11×18cm)

〈사진:안장헌〉
대불, 산사의 향기, 한국의 석불, 적멸보궁과 기도도량, 한국의 명찰, 불교전통문살의 美는 한국불교사진 예술의 독보적인 안장헌교수의 작품이다. 안교수는 월간 영상편집장을 지낸바 있으며, 20여년간 수많은 불교문화유산을 사진에 담아왔다. 석불, 국립공원, 석굴암, 영겁의 미소, 선의 세계 등의 사진작품집이 있으며, 현 한국사진작가 협의회원 및 대한사진예술가협회 자문으로 있다.

365일 벽에 걸린 달력은
불교 위상을 높이는 말없는 포교사입니다.
해마다 이러한 사명으로 품위있고 격조 높은 달력을
만들어 수많은 사찰과 불자님들에게 기쁨을 드려왔던
감로기획에서는 불기 2544년 달력을 주문 받고 있습니다.

■크 기:大(30×31cm) 국6절
小(26×26.5cm) 사륙12절
■매 수:표지포함 13매
■특수고급 제본(TW스프링)
■주문부수:100부이상(차량용 미니 달력 200부이상)

감로기획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3번지 전화:(02)723-4306·4307·4309 팩스:(02)738-8682

전국 유명불교용품점에 있습니다.